보스톤 한인 교회 소식지 2월호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Vol. 38 No.2
2008.4. 13

사랑의 마음 희망의 말

한울타리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4월호차례

부활절 주일 예배
ECC교육관 건축 착공의미
권두언
당회 소식
교회 건물 사용 제배치
제직 수련회
신임 서리집사
니카라과 선교
집사회 소식
여선교회 소식
부부 청년부 소식
청년부, 중고등부 소식
교인 위원회
해바라기 유년주일 학교
웨마의 봄
English Night
교우 동정
KCB 나누고 싶은 모습들

부활절 주일 예배

올해는 유난히도 빨리온 부활절 인지라 날씨도 제법 추웠지만 예수님의 부활를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에 많은 교인들과 학교 공부로, 직장일로 떠나가 있던 가족들과도 함께했던 은혜로운 주일이었습니다. 성만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주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음미함과 동시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마음가짐도 다시 추스려 보며, 이영길 목사님의 "베드로의 눈물" 의 설교 말씀이 함께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이틀 전인 성금요일의 예배 또한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주님의 고통을 함께 생각하며 드린 은혜의 예배였습니다. 이영길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마리아의 눈물" 은 곧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고통의 눈물은 위로를 받으신다는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찬양대의 천상의 찬양은, 주님의 우리를 위해 고통 당하시고 돌아가신 아픔을 더욱 간절히 느끼게 하는 마음의 간증소리였습니다.

ECC 교육관 건축 착공의 의미

건축 위원장 한승희 장로

본교회 모든 교우들의 오랜 숙원이며, 지난 2003년부터 계속하여 간절히 기도해 왔던 ECC (Education and Community Center) 교육관 건축의 착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모두 돌립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보스톤 한인교회는 1953년 Thanksgiving Sunday 에

(2페이지에 계속)

'꿈을 팝니다'

이 영길 담임 목사

우리말동사에 '파다' (dig)와 '팔다' (sell)가 있습니다. '꿈을 판다' 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꿈을 팔고자 (sell)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파고(dig) 싶습니다.

지난번 저는 일본 동경에서 모이는 해외 이민교회 교육 및 목회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이민교회 교단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민교회의 앞날을 구상하고 연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의 마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우리 이민교회들이 뚜렷한 꿈이 없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많은 이민교회들이 뚜렷한 비젼없이 한 주 한 주 예배드리고 있음을 이번에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마음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제2의 희년을 향한 비젼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2의 희년을 향한 비젼을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꿈에도 그리던 ECC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꿈을 파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교육관은 우리들의 꿈의 깊이만큼 파게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의 꿈의 높이만큼 올라가게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의 꿈의 넓이만큼 넓게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꿈을 파십시다.

우리들의 꿈은 땅을 부술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우리들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꿈을 파십시다.

당회소식

김문소 장로

2월/3월 정기 당회 소식입니다.

1. 이요한 전도사께서 2월 1일부로 청년 1부 담당 교역자로 임명되었습니다.

2. ECC 건축 착공 예배와 착공식(Groundbreaking)을 4월 13일 1부와 2부 예배후에 갖기로 하였습니다.

3. 베다니 장로교회에서 새로운 담임목사로 Rev. Kevin Manuel께서 3월 22일부터 시무하시게 되었고, 4월 13일 오후 3:30분에 취임예배가 있습니다.

4. 1월 노회 정기 모임에 총회 PILF 대표 Jay Hudson이 참석하여, 본교회 대표에게 160만불 Loan을 전달하였습니다. 보스톤 노회가 32만불을 본교회를 지정하여 적금해 주어서, 3년간 7,869불이 절약되었습니다. 또한 퀸지영생 장로교회에서 PILP에 17만불을 본교회를 지정하여 적금해 주셨습니다.

5. 중고등부에서는 견신반에서 8명이 세례와 견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4월 27일(주일) 견신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ECC 교육관 건축 착공의 의미

(1페이지에서 계속)

창립된 이후 44년 간 여러 곳으로 이전하며 자유로이 예배 드리고 신앙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성전 건물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1967년에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여 "정착" 하였으나 그 후 30년간은 "셋방살이" 의 연속으로 여러 불편함과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으며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 하시기 전 먼저 40년간 광야에서 저들을 단련시키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44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자체 교회 건물이 없이 "광야" 에서 살게 하시다가, 1997년 9월에 지금의 이 교회당을 보

English Night

지난 3월 22일에는 김성현, 이은주 집사님댁에서 English Night이 있었습니다. 8가정이 모인 이번 모임은 백승한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 인도로 시작을 하여 요한복음 19,20을 돌아가면서 읽고, 그 말씀을 음미하며, 서로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주고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날의 성경구절이 이영길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주일 설교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입장 그리고 현재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갈수록 깊이와 의미를 더해가는 English Night! 다음 모임 때는 더 많은 English-speaking분들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교우동정

1. 김기현 교우 책 출간: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
코리아닷컴 | 2008년 3월

김기현 교우(부부청년부)께서 한국에서 자신의 스토리를,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란 제목의 책으로 출간하셨습니다.
김기현 교우께서는 시각장애자인신데, 현재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상담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신과 같이 중도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이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김기현 교우님은 현재, 남편 박관용 교우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고 계시며 얼마전에 딸(예승)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또한 이곳 보스톤에서 재활기관인 캐롤센터에서 인턴생활을 하며 재활상담을 배우고 계신데, 졸업 후에는 아시아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일할 계획이십니다.
"꿈 많던 소녀에게 닥친 갑작스런 시각장애는 세상의 빛이 아닌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빛으로 소망으로 나아간 그녀에게 정상적인 시력을 지닌 멋진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축복도 주어졌습니다….기현이가 이처럼 청천벽력 같은 절망을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현이의 재활일기는 꿈과 희망을 잃은 독자들의 마음에 큰 소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김기현씨는 전공을 철학과 특수교육학으로 바꾸어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KBS 라디오에서 '김기현의 재활일기'라는 코너를 맡아 진행하면서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대학에 유학하여 재활상담학을 공부하며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책 소개 글에서..]
이 책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kihyunkim1975@gmail.com로 이메일하시면 저자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김원옥 집사님께서 Newton에서 열리는 그룹 Art Exhibition에 참가하셔서 그림을 전시하십니다. Newton에 위치한 JCC Center (333 Nahanton St.)에서 5월 16일(오후 1-4시)과 5월 18일(12시-오후 6시)에 전시를 합니다.

3.송재옥 집사님의 Sprint Art Show가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Sudbury에 있는 자택(100 Puritan Lane, Sudbury)에서 열립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Ceramics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4. 출생:
지난 2월부터 4월초까지 득남, 득녀하신 가정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주한/장숙경 교우댁 득남(Rei)
정광근/이동화 집사댁 득녀(민아-Mina)
파바로 바이런/장윤희(Sophia)
페트릭 첸/윤서영(Calvin)

해바라기 유년/초등주일학교 소식

1. 부활의 은혜를 내 맘 속에!
<초등부 학생들 구약 암송 행사>
지난 부활절에 해바라기 초등부 학생들은 구약 39권을 순서대로 외우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학생들은 3월 한달동안 꾸준히 연습해 온 구약성경 39권의 이름을 한사람씩 나와서 암송했습니다.
암송을 한 학생들에게는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수료증을 수여하였습니다.

2. 부활의 기쁨을 친구들에게!
<부활절 바구니 하나는 내게,
또 하나는 친구에게>
해마다 하나씩 주던 부활절 바구니를 올해는 두개씩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담은 스티커, 도전하는 말씀이 담긴 팔찌, 그리고 부활절 계란….

부활의 기쁨을 친구들과 나누면서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은 갑절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쉐마의 밤

3월 29일(토) 쉐마의 밤이 오후 6시부터 열렸습니다. 이번 쉐마의 밤에는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나눈 후, 본당에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쉐마 찬양단의 인도로 찬양을 드리고, 중앙 3구역/4구역 이 나와 한가족된 구역 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구역이 나와서 구역원들과 주 안에서 한 가족처럼 서로에게 신앙의 도움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구역 소개의 시간이 있은 후, 두 구역이 합동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어, 함께 축복해 주는 축복송을 부르고, 허신영 목사님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란 제목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가족과 교회, 교육관 건축과 니카라과 선교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시 통역자 구함

우리 교회에서는 2부 예배 때에 영어권 교우님들을 위하여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박성준, 백남욱, 백승한, 안은신, 김우진, 홍경화, 한혜성, 이혜원 집사님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 전체 순서 대부분을 통역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셨던, 한혜성 집사님과 안은신 집사님께서 아기 출산 관계로 새롭게 동시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박성준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스톤 노회를 통하여 부르크라인 제일 장로교회로 부터 교회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양받는 엄청난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마침내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계속하여서, 첫 희년을 2003년 감사절 주일에 맞이하는 큰 기쁨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첫 희년을 계기로, 장차는 이 일에 앞장 서야 할 우리들의 자손들을 알뜰하게 가르치고 훈련하기에 부족한 교실들과 설비들을 장만하고, 아울러 우리들의 이웃과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Community Center를 포함한 ECC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 우리들의 꿈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Children's Chapel이 ECC 교육관 건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지하의 예배실에서 나와 밝은 이층의 아름다운 어린이 예배당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만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울러 ECC 교육관 설계를 한 Brian Healy Architects(BHA)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이런 어린이 예배당은 건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ECC 교육관의 디자인은 그 건축 설계의 우수성을 건축가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받아 건축가에게 주어지는 명성이 높은 설계상을 최근에 수상하였습니다. 이제 ECC 교육관은 앞으로 45년 후에 있을 보스톤 한인교회의 제 2 희년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해줄 우리들의 믿음의 유산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 왕이 그렇게도 원했던 성전 건축을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는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보스톤 한인교회를 지극히 사랑 하셔서 이제 우리들의 성전의 착공을 허락하신 이 엄청난 은혜를 어찌 다 말로 형용 할 수 있을까요? 다만 감사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ECC 교육관 건축이 착공되기까지 지난 거의 5년간 계속해온, 당회와 건축 위원회 그리고 모금위원회 위원들과 수많은 숨은 봉사자들의 헌신과 사랑의 봉사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 온 교회가 이영길 담임목사님을 따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한 것 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많은 건축 헌금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내년 2009년 4월에 완공 예정인 ECC 건축 공사가 아무 사고 없이 주어진 계획과 시일 내에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건축 기금이 성공적으로 모두 준비되어 건축에 필요한 경제적 뒷받침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온 교우님들께서 간절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각 그룹의 교회 건물 사용 재배치에 관한 알림

기획관리위원회 김세철 장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ECC건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사 기간동안 온 교우님들의 협조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공사 기간중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나, 여러 교우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공사가 시작되면 기존에 사용하신 Parlor, Room #16, #15, #17, #4 등 활발히 사용되던 공간들이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 여러 부서가 사용하던 방들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중고등부와 청년 2부, 찬양대 등이 사용하던 #16을 쓸수 없게 되어, 중고등부와 청년 2부는 친교실을 사용하고, 찬양대는 소예배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1부는 Room#7을, 부부청년부는 Room#11 & 9(주일)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공사 진행 스케쥴에 따라, 아마 5월 중부터 변경된 방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 Room 재배치표를 참조해 주시고, 각 부서에게는 정확한 날짜를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4월 20일부터는 부득이하게 1부 예배를 15분 당겨서 오전 8:45분에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시에는 친교실을 중고등부가 예배실로 사용하는 관계로 본당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교회 건물 사용자 그룹 재배치 Plan (Effective May, 2008)

금요일

Department/부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	앞으로 사용할 방	사용 시간
청년 2부	Room #16	Fellowship Hall	7pm-10:30pm
청년2부(계속)	Room #8 & #15/17, #12	Fellowship Hall,#8,12	7pm-10:30pm
청년 1부	Room #4	Room #7, #7-a, b, c.	7pm-10:30pm
부부청년부(Saturday)	Room #11 & #9	Room#7,7a,b,c	7pm-10:30pm
중앙 3, 4구역	Parlor	Room #9& #11	7pm-10:30pm
Bethany College Group	Chapel	Chapel	7pm-10:30pm

주일:

Department/부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	앞으로 사용할 방	사용 시간
중고등부	Room # 16	Fellowship Hall	11:45am-1:15pm
청년 2부	Room # 16	Fellowship Hall	1:45pm
청년 1부	Room #4	Room #7,7a,7b,7c	1:30pm
부부청년부	Room #7 & #11	Room#9 & #11	1:30pm - 2:40pm
1부, 2부 찬양대	Room#16	Chapel	1부) 7:30am-8:50am 2부) 10:30am-11:50am
은혜마을	Chapel	Chapel	1:30pm
새교우환영(교인위)	Parlor	Fellowship Hall Corner	1:20pm - 1:45pm
KCB 친교	Fellowship Hall	Same As Is	1부)10:20am - 10:50am 2부) 1:20pm -1:45pm
FPCB	Parlor	Fellowship Hall (temporary)	11:15am-11:40am
Adult Bible Study	Chapel	Room # 8	10:30 - 11:45am
YG Bible Study	Rooms 15,17,16	3 Classes in Fellowship hall	12:45 - 1:15pm
구역공부인도자모임	Room #8	Room #7a	10:30 - 11:30am
새교우반	Room #8	Room #7a	10:30 - 11:30am
세례자 교육반	Room #15	Library	10:30 - 11:30am

부부청년부 수련회

부부청년부는 4월 11-13일까지 Sharon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재천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부" 란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참가한 부부들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청년 2부 소식

오는 4 월 19일 (토) 새신자 환영회가 이혜원 부회장댁에서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새신자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함께 즐거운 만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년 2 부의 5월달 봉사활동을 보스톤 Harrison Avenue 에 있는 Rosie's Place 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Rosie's Place 는 197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가난한 여성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 민간 단체입니다. 이번 청년2부의 봉사활동은 5월 17일 (토요일) 점심식사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과 나누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소식

이번 4월달에는 저희 중고등부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4/18-20 에는 저희 일년 행사중 가장 중요한 봄 수련회가 Grotonwood에서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도 한단계 올릴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반드시 아이들을 수련회에 참석하도록 학부모님들께서 꼭 협조해 주십시요. 공부 하루 더 하는 것보다, 운동 경기 한번 더 참석하는 것보다, 자녀들을 참된 크리스챤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 교인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 학생들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4월 27일에는 7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례, 견신을 받습니다. 그 전날에는 이를 축하하는 파티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께서 기도로써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함께 봉사하실 선생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교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정한진 (John Chung) 전도사 (347-821-1294) 나 김성현 집사 (617-332-1950)에게 연락주십시요.

교인위원회 보고

2008년 4월 활동교우 되신분들:

민병준/이상정, 공은희, 김경민/이현주,
이용재/이윤선, 유민재/김래아, 이형곤/윤혜민,
강승민/김윤정, 이원기/이기순,
김향인(방경남), 김도균

마리아 여선교회 소식

1.지난 2월 24일(일) 오전 10시30분에 임시총회를 갖고 2008년도 임원진의 인준을 가졌고, 올해의 회비(50불/yr)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해에 있을 행사를 살펴보며 모든 여선교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였습니다.

2.3월 7일(금) 오후 7시에 본교회 예배당에서 한미교회여성연합회가 주관하는 "세계기도일" 예배를 가졌습니다. 타교회 여선교회원들을 포함하여 약 35명의 여선교회원들이 중남미의 가이아나 근로여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4월 6일(일)에 본교회의 여선교회의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설교로 윤경문 목사님의 "이른비와 늦은비" 란 제목의 설교말씀과 함께, 1부 예배는 마리아 여선교회 주관으로, 2부 예배는 에스더 여선교회 주관으로 은혜로운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4.미국장로교 보스톤 노회 여성모임이 4월 6일(일)에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Easton)에서 가졌습니다.

5.4월 18-19(금-토)일 양일간에 걸쳐,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여선교회 동북대회 연합회 주관으로 "여선교회 연합수련회"가 Stony Point Retreat Center (N.J.)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본교회에선 6-7명의 여선교회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김한나 집사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여선교회 소식

1.에스더 여선교회는 지난 2월 10일 소예배실에서 2008년도 첫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각 부서의 역할 및 담당 임원진을 소개하고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논의 및 올 한해 교회 살림을 꾸려나갈 방안도 모색해보았습니다.

2.에스더 여선교회는 3월 23일 성요한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다과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호박죽을 비롯한 풍성한 음식은 부활의 기쁨에 동참코자 참석한 여러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한껏 더 기쁘게 하였습니다.

3.더불어 지난 4월 6일에는 에스더 여선교회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헌금특송으로 준비한 "아름다운 예배"를 연습하고 맡은 바 순서를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이었기를 바랬으며, 주님의 일로 섬김을 다하는 여선교회가 되고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어머니 주일 각 기관/구역별 예술제
약 30여년의 전통으로 이어져온 어머니 주일 예술제가 올해에도 여선교회 주최로 열립니다. 각 기관과 구역들은 이 행사를 위해 찬송, 성가, 연극, 춤 등으로 준비하셔서 아름답고 즐거운 어머니 주일 행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직수련회

3월 15-16일 제직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조기연 목사님(서울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께서 "진정한 예배/참된 예배자" 란 주제를 가지고 제직수련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첫째날은 초대 교회 때부터의 예배 형식과 특징을 역사적으로 개괄해 주시고, 현재 미국에서 대두되는 예배 스타일에 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둘째날은 변화하는 기독교 예배를 돌아보며, 참된 예배자와 참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번 제직수련회를 통해서 기독교 예배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다양한 예배 형식을 접해보면서, 다양한 각도로 예배 전반에 관한 고찰을 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또한, 제직수련회 첫날에는 새로 임직 받으신 서리집사님과 추천 장로의 소개와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임 서리집사로 임직 받으며

정광근 집사

집사로서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을 다해 섬기겠다는 다짐과 함께 저희 가정의 신앙 얘기를 전해 드릴까 합니다. 그 신앙 얘기가 지금 이곳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저를 허락한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외증조모님께서는 여든을 훌쩍 넘기실 때 까지 장수하셨는데, 어릴적 외갓댁에 가면 외증조모님과 외조모님을 함께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서 어릴적 기억을 더듬어 보니 참 이상했었습니다. 외증조모님은 스님들이 입는 승복 같은 옷을 입고 방안에서 염주를 돌리고 계셨고 그 바로 옆에선 외할머니가 교자상에 성경을 펴 놓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시고 뭐… 조금은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어릴 땐 두 분 다 무슨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커서 어머니 설명을 들어보니 외증조모님은 시골 한 절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실 정도의 불자셨고 외할머니는 장로교 교회의 권사님이셨다는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예수쟁이(?) 딸의 집을 매번 오실 때마다, 왕방울 만한 구슬이 꿰어 있는 염주를 보따리에 싸오시는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핍박 앞에서도 끝까지 기도와 찬송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와 찬송은 바로 지금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한 귀중한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그 씨앗은 오랫동안 저희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 외할머니의 맏사위인 저희 아버지는 예순이 넘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리산 대청봉을 100번 이상 오르셨을 만큼 산을 좋아하신 아버지는 30년을 넘게 타온 산을 주일 예배와 두 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바꾸셨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집사가 3명입니다.
아버지, 형 그리고 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 가정은 밝고 빛나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도 이제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보스톤 한인교회를 위해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난 달 태어난 예쁜 딸 민아(Mina)에서부터 세상 밖의 친구들까지 제 신앙과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 믿습니다. 보잘것 없고 허물투성이인 저를 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저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그 소망을 이루시리라는 걸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보스톤 한인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니카라과 선교팀

해외선교위원회 니카라과 선교팀은 3월 9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계속적으로 단기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을 갖으며 이번 7월(7/26-8/2)에 있을 니카라과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니카라과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여 의료, 교육, 미용, 치과 선교를 한바 있는데, 올해에도 니카라과에서 열매있는 단기선교를 펼치려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귀한 니카라과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실 분들은 해외선교위원장(최연일 장로님)께 연락바랍니다.

단기 선교팀 훈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26일(토), 5월 17일(토), 6월 28일(토)- 오후 5시

니카라과 선교지에서 온 편지

니카라과는 12월부터 2월말까지의 날씨가 제일 환상적입니다. 낮에는 화씨 88도 밤에는 75도입니다. 물론 낮에는 아직도 해가 쨍쨍하기 때문에 덥다고 느끼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옛날에 살던 커네티컷의 가을 날씨를 연상케 합니다. 지금도 창문을 열고 그 옆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보니 선선한 바람을 통해 동부의 가을 날씨가 그리워 집니다.

지난 해를 생각하면서 머리 속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 팀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2년 반동안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셨나 하면서 감탄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를 칭찬하시는 말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서 들으면 더욱 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경우 나이가 들어서 선교사로 와서 하나님도 마음이 바쁘셨는지 몰라도 많은 사역을 열어 주셨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몇 주면 다 끝날 의료 센터를 생각하면 더욱 더 신기합니다. 우리 무숙자 센터 옆에 붙어 있는 그 빌딩을 구입해서 의료 센터로 시작한 것이 이제 4개월이 되어 갑니다. 너무나 예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곳에 오는 환자들이 마음 편하게 찾아와 필요한 치료를 받고 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클리닉이 니카라과 곳곳마다 생기기를 기도 해 봅니다. 그런 병원들이 크고 커서 한국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생각만해도.

아이들이 무척 컸습니다. 키도 컸지만 영적으로도 많이 컸습니다. 자기들끼리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교회 봉사를 통하여 이런 저런 어린 모습들이 조금씩 벗어져 나가는 듯 합니다. 하린이가 제일 많이 컸습니다. 7살까지는 하는 행동들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8살이 되더니 걱정하던 버릇들이 많이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의 영주권 문제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고 언짢지만 곧 하나님이 이 일도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나카라과의 정세는 요즘 구름 속을 헤매고 있는 듯합니다.. 앞이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테가 정권이 이상한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전한 정치 속에서 지금 이 나라가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선교를 하는 가정들은 그저 정부에서 선교사만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사역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들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선교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아이들이 있는 선교사 가정들은 아마도 조금 걱정이 클 듯 싶

습니다. 자식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어느 부모나 다 같으니 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아직도 2년 반, 3년 반을 더 기다려야 하는 유라와 소라 그 동안에 움직임 없이 이 학교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마도 2008년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해인 듯합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많은 일들이 준비 되어서 있고, 특히 의료 선교 클리닉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올해에 그 일이 잘 되면, 앞으로 그런 클리닉을 계속 세워 나갈 생각으로 시작하니 참으로 기쁘기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한 현지 목회자 협력 사역이 잘 되어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10분의 현지인 목사님과 한 달에 두 번씩 만나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기도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 들이 오면 목사님들 교회와 연결해서 같이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가정들에게는 우리 의료센터를 무료로 제공 할 것이며, 필요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해서 대학교까지 도와 줄 목표를 잡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늘 지켜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써 함께 동역 하는 모든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들 드립니다. 2008년에도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정, 사역, 그리고 동역 하시는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과 함께 특별 기도의 제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성령의 인도 하심을 더욱 간구하는 삶을 살도록
2.믿음의 역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3.막내 하린이의 이민 수속 문제가 신속히 해결 되도록
4.의료 사역관 공사의 마무리와 보사부의 인가 절차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구, 한 미경 선교사 올림

집사회 소식

본 교회 집사회는2007년 12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한문수 집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임원단을 구성하고, 전임 회장단(회장: 이경환 집사)으로부터 업무를 인수 인계함으로써, 2월 1일부로 2008년도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이 선출 및 임명된 임원들과 함께2월8일 저녁 8시에 교회 친교실에서 첫 임원회의를 열고, 올 한 해 동안 집사회에서 주관하게 될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23일(토)에는 이영길 목사님, 윤경문 목사님, 조준호 장로님(집사회 고문)과 집사님들을 모시고 집사회 첫 전체회의(임시총회)를 소예배실에서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새로이 구성된 임원단의 인증이 있었고, 모든 집사님들이 집사회 부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부원을 모집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50여명에 가까운 집사님들의 참여로 인해 각 부서별로 3~5명의 부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3월31일에는 집사회 봉사부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청소는 교육관 착공 전에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집기 및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 추가되어, 예년의 대청소보다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의 참여로 인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육관 착공을 앞두고 착공예배가 4월13일(주일)로 계획된 가운데, 전날인 4월12일(토)에는 집사회 주관으로 “ECC Groundbreaking찬양과 감사의 밤” 행사가 저녁 7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유치 • 유년부, 초등부, 중 • 고등부, 청년1 • 2부, 상록회 및 권사회, 그리고 당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교육관 착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5월에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예년과 같이 집사회에서 준비하는 맛있는 오찬이 기다리고 있으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준비하는 집사회,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집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 제직 수양회

• 이스라엘 무덤 교회 벽화

• 해바라기 주일학교– 구약 성경책 암송대회

• 홍보위원회 모임

• 성 금요일 예배

•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브엘쉐바의 우물

• English Night

• 부부 청년부 수양회